

보령제약 카나브, 해외시장 ‘질주’

(고혈압신약)

동남아 이어 중남미 진출 확장
사전 마케팅으로 동남아 인지도 ↑
잇단 발매허가로 중남미 입지 확대

보령제약 고흥압신약 카나브 패밀리가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남미 진출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달 30일 필리핀에서 카나브 발매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카나브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8월 말레이시아에서 발매된 데 이어, 이번 필리핀 발매를 통해 동남아 3개국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게 됐다.

보령제약과 줄리파마는 2017년 1월부터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주요심장내과 전문의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미팅과 2017년 아시아 태평양 심장학회(APSC)에서 심포지엄을 진행하면서 카나브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시장안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줄리파마 마케팅책임 부사장 존호스트는 “사전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주요국가에서의 카나브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임상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며 “카나브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근거중



지난 4월 30일 필리핀 마닐라 크라운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카나브 필리핀 발매식에서 싱가포르 마운트엘리자베스 병원의 심혈관 전문의 웅헨리 교수가 카나브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시장에서의 입지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보령제약은 지난 4월 말 멕시코에서 듀카브가 발매허가를 받았다. 듀카브는 ARB(엔지오텐신II 수용체차단제) 계열인 카나브 성분인 피마사르탄과 CCB(칼슘통로차단제) 계열의 아로디핀 성분을 합친 항고혈압복합제다. 듀카브는 멕시코 현지에서 ‘아라코듀오’라는 제품으로 오는 8월 발매될 예정이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4년 멕시코에서 아라코(카나브 단일제)를 런칭하고, 2016년 6월에는 디아라코(카나브

플러스, 이노복합제)를 런칭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이전에 고지혈증복합제인 투베로(파마사르탄+로스바스타틴)도 발매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그 동안 주요시장에서 등록 위주(발매 허가 획득)의 정책을 펼쳐 타깃으로 하는 많은 시장에서 등록을 완료했으며,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미팅을 통해 임상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카나브패밀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령제약 이삼수 사장은 “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중남미 시장에서도 카나브패밀리가 No.1 항고혈압제가 될 수 있도록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기온 높아지며 ‘수족구병’ 또 유행

영유아 집단생활 유치원 등 비상
의심때 다른사람과 접촉 피해야

령별로 보면, 7~18세는 0.3명에 그쳤지만, 0~6세의 영유아는 3.8명에 달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어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발생분율(%)은 2019년 14주(3월 31일~4월 6일) 2.4명에서 15주(4월 7~13일) 2.3명, 16주(4월 14~20일) 2.8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앞으로 기온이 더 상승하면서 환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 입안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물집성 발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2019년 16주(4월 14~20일)의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 발생분율(%)을 연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물집의 진물 등),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대부분 증상 발생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낫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 증상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 소독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발열과 함께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등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이세경 기자



씻가루 포함 ‘노니 분말’ 22개 회수 “항염·항암” 허위·과대광고도 적발

씻가루가 포함된 노니 분말 제품 22개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mg/kg)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노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환과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을 위반한 곳이다.

또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 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며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서 자석을 이용해 씻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해외선 흥역... 국내선 A형간염

감염병 주의보... 예방접종·손씻기 필수

20~40대 젊은층서 환자 발생 ‘주의’
위생 좋아지며 항체 형성률 떨어져

전 세계에서 흥역이 유행하고 국내에서는 A형간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와 더불어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흥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A형간염 확진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흥역은 ‘후진국병’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없어진 전염병으로 여겨졌지만 올해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처음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1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매년 20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최고치다.

A형간염 역시 대표적인 후진국병이지만, 찌개 등을 한 그릇에 놓고 함께 먹는 식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퇴출이 쉽지 않은 감염병이다. 지난해

에는 신고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신고 건수가 3천 500건을 넘어서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흥역과 A형간염은 20~40대 젊은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감염병 모두 사회 발전과 위생상태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이상에서는 어릴 적 흥역이나 A형간염을 앓은 경험이 있어 몸에 항체가 형성된 경우가 많지만, 사회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좋아지면서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출생자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국내 흥역 확진자의 경우 20~3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A형간염 역시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30~40대다. 흥역과 A형간염 모두 백신이 있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연령층 가운데 유행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병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흥역은 MMR 백신을 접종하

면 예방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기록이 없으면서 과거 흥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7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접종이 권고된다.

A형간염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시행해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주사를 맞으면 된다.

예방접종과 더불어 기침예절,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흥역은 호흡기 비말과 공기 중 전파되는 만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A형간염은 주로 오염된 손과 물, 음식, 소변, 대변 등을 통해 사람의 입을 거쳐 감염되므로 손씻기, 물 끓여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찌개 등 음식을 먹을 때는 개별그릇에 덜어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이세경 기자